

온갖 비리에 특하면 고장·중단... 화나고 불안해

한빛원전 인근 영광주민들 '원전 스트레스'

“불시 가동중단 다른 사태 이어질까 일본 원전사고 겹쳐 이젠 무서워요”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아 중단 소식도 못 알려줬어요.”

한빛(영광)원전이 불안하다. 끊이질 않고 터져 나오는 원전 비리에,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21일 불시 가동 중단 소식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겹쳐지면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고장·중단, 연례행사? = 21일 오후 발생한 한빛(영광) 6호기 가동 중단은 지난 1월 재 가동 이후 8개월 만이다. 한빛 6호기의 경우 지난해 11월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이 대량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동을 멈췄다가 올해 초 발전을 재개했다.

원전 가동 중단 소식을 접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광배했다. 당장, 김모(64·영광군 흥농읍)씨는 “30년간 살면서 늘 겪었던 일”이라며 “특하면 중단됐던 소식을 듣다보니 무덤하다”고 했다. 그만큼 원전 고장·중단은 늘상 있는 연례 행사나 다름없었다는 게 주민들 반응이다.

2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10년 전인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한빛원전 사고·고장 건수는 35차례에 달한다. 6기의 원전 중 ▲1호기 3회 ▲2호기 7회 ▲3호기 5회 ▲4호기 3회 ▲5호기 12회 ▲6호기 5회 등으로 전국 원전 중에서 올진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정부가 지난해 위조 부품이 공급된 데 따라 부품 교체를 위해 원전 가동

을 멈춘 사례 등을 제외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동 중단 횟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연례 행사’라는 말이 나올만하다.

원전 안전성 불안감 확산=원전 불시 중단 소식을 접한 주민들의 냉소적 반응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깔려 있다.

이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간접 경험했던데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들이 공급되는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질 않았다는 점에서 불시 가동 중단이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다른 원전은 이상 없는 지 여부를 걱정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또 한빛 6호기가 지난해 11월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이 대량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 가동을 멈췄다가 발전을 재개한 지 7개월 만에 돌연 작동을 멈췄다는 점에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은 없다”는 한빛 원전 측의 입장과 달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검증도 안된 부품을 10년간 사용해 오다 적발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3호기 재가동 과정에서 수차례 말을 바꾸며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모(50·영광군 흥농읍)씨는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은데다 불안해할 주민들도 많을 것 같아 이웃에 가동 중단 사실을 알려주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빛원전(구 영광원전)에서 작동 이상으로 원자로 운전을 정지한 횟수는 모두 35건에 이른다. 21일 오후 원자로 냉각재 펌프 이상으로 불시 정지한 한빛 6호기(맨 오른쪽)의 경우, 지난 2002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모두 9번 고장 등을 이유로 정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우려가 현실로... 추가고장 땀 ‘블랙아웃’ 우려

가동 수급대책 전부 동원

막바지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 한빛 6호기(발전용량 100만kW)가 21일 오후 고장으로 돌발 정지하면서 전력수급이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운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일 전력 유관기관장을 불러모아 전력수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전기 한 대만 불시 고장으로 정지하더라도 2011년 9월 15일과 같은 순환단전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한빛 6호기가 갑작스레 가동을 멈

춘 시각은 이날 오후 2시 44분, 1시간 10분 전 예비전력이 450만kW 아래로 떨어져 수급경보 1단계인 ‘준비’가 발령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다.

100만kW급 발전기 정지로 7천800만kW 안팎의 공급능력은 순식간에 7천700만kW 아래로 떨어졌고 급기야 오후 3시 28분 순간 예비력 350만kW마저 붕괴돼 수급경보가 2단계인 ‘관심’으로 떨어졌다. 올여름 들어 관심 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6월 5일과 이달 9일에 이어 세 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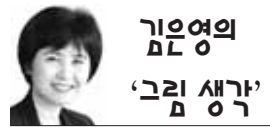
하루 중 전력수요가 최고치에 달하는 피크시간대(오후 2시~5시) 발생

한 돌발 상황이라 전력당국도 향후 전력수급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력당국은 기존에 시행 중이던 수급대책에 더해 오후 4시부터 지능형 수요관리(9만kW)를 긴급 투입했다. 아울러 전력수요가 또 한 번 치솟는 오후 5시부터는 석탄화력발전소 최대출력(47만kW),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가동(10만kW) 등의 비상대책까지 동원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행여나 발전기 1대가 추가로 가동을 멈춘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양심적인 일본인 화가가 그린 ‘초혼의 노래’



(41)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진혼곡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 밖에 보지 않는다” 카이사르가 ‘내전기’에서 언급했던 말이다. 같은 의미로,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또한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것 같다. 오늘 우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그린 것이 아닐까? 불행한 역사를 만나서 한 평생 피땀 흘린 절규와 한스러운 세월을 지나왔고 그러고도 배상받지 못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이 너무 아프고 처절해 차마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 같다.

최근 들어 지난 주 개봉한 영화 ‘그리고 싶은 것’을 비롯, 위안부 제막, 그림, 사진, 연극 등에서 ‘위안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미안한 마음이 조금 덜어진다.

‘일본군 위안부’를 그린 그림인 일본 여성화가인 도미야마 다에코(1921~)의 ‘가롱간 제사의 밤-죽은 사람의 혼이 돌아오는 날’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가롱간 제사는 조상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을 찾아와 위로한다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전통 제의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겹겹’ 쌓인 해골



도미야마 작 ‘가롱간 제사-’

과 그 아래 포개져 있는 일본군 위안부의 나신들, 그리고 일본의 패잔병들을 통해 일제 만행을 고발하고 있다. 지난 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윤범모교수(가천대)가 기획한 서울전에서 이 작품을 발표한 도미야마는 “나 자신 무너져서 그 여인들의 가슴 속 깊이 맺힌 한과 슬픔을 그렸고, 이는 혼을 불러 일으켜 세우는 초혼의 노래”라고 진술한 바 있다.

양심적인 일본인으로 위안부와 강제 징용자들을 형상화하면서 일본에 전쟁의 책임을 추궁하고 참회와 반성을 촉구하는 도미야마의 작품들은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금기되었다. 도미야마의 그림을 보면서 국적과 이념을 넘어서 역사의 진실을 발원하고 역사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예술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빛의만평

- 김중두



‘몰타기’ 하는 짓 재미 불었구나

“노태우 미납추징금 230억 월내 완납”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이르면서 이달 말 완납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최근 미납 추징금 230억4300만원을 분납해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동생 재우씨는 미납 추징금 중 150

억원을, 신 전 회장은 80억4300만원을 맡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추징금을 분납하는 대신에 노씨 측에서는 그동안 양측에 지급을 주장했던 ‘이자’를 깨끗이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자는 최종 합의를 위한 문안 작성까지 마쳤고, 서명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만간

서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서 이달 30일께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납부를 위한 합의가 진행 중이고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시기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

노태우-재우-신명수 분납하기로 3자 합의

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2628억원 중 2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이 미납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씨 미납 사건과 관련한 추징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노씨는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미납금 230억원을 건넸고 동생 재우씨에게도 120억원 상당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재우씨로부터 모두 69차례에 걸쳐 52억7716만 원을 회수하고 70억원 가량을 남겨놓고 있다.

이들 3자가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6월 노씨 측이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 진정 사건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naviel

고객이 인정한 브랜드, 나비엘



나비엘갤러리

셀프 뷰티 & 헬스케어 전문샵

‘나비엘갤러리’가 성공창업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전국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장소
대전	8월 29일(목) 오전 11:00~	호텔 선샤인 2층 루비홀
광주	9월 04일(수) 오전 11:00~	김대중 컨벤션센터 컨벤션동 C 3층
부산	9월 05일(목) 오전 11:00~	해운대 센텀호텔 4층 제우스홀
서울	9월 10일(화) 오전 11:00~	서울 플라호텔 1층 로얄 볼룸

전속모델 / 배우 이해숙



www.ceragemlohas.co.kr

나비엘갤러리 호남권 사업설명회

일 시 : 2013년 9월 04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컨벤션동 C 3층 308호

대 상 : 뷰티&헬스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참석자가 많으므로, 사전예약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참가신청 및 창업문의 전화 : 02-562-2774

나비엘갤러리의 성공창업 포인트!

- 유행을 타지 않는 뷰티 & 헬스케어 사업
- 적은 창업 비용과 높은 수익률
- 체계적인 본부장/지사장의 밀착 지원 및 교육
- 초보창업자도 쉽게 운영 가능한 지원시스템

세계 70여개국에 3,000개의 대리점을 보유한 글로벌 헬스케어기업 세라젬 그룹

